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장마

| 윤홍길



핵심 정리

작품 분석

시점

- 가족 이야기가 중심일 때: 1인칭 관찰자 시점
- '나'의 성장 과정이 중심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음.

"불쌍한 것……"

전쟁 때 죽은 자식에 대한 측은지심(연민)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할머니의 행동을 묘사적으로 표현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

할머니의 행동 관찰로 할머니의 처지를 생각하게 됨.

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외삼촌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유사하게 인식하여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음.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적과 맞서는 맨 앞의 전선

외삼촌의 죽음 원인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삼촌과 동일시 하는 '나'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환기함.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나'의 실토가 갈등의 출발점이 됨.

근 달소수간이나 졸군 울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

할 말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근신에 대한 '나'의 불편한 마음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함.

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

자신이 형사에게 말한 사실의 직접 피해자임.

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할머니의 처지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통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부재를 실감하기 시작함.

지서를 받던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자식의 전사 소식을 알았던 순간의 할머니의 모습

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

현재의 할머니의 모습에 대한 '나'의 평가

을 뿐이었다. 구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할머니의 현재의 상태를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고 있는 부분

말았다.**[중략]**

➤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에 대한 '나'의 연민**

어머니와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할머니와 외할

머니의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

불화의 원인이 '모성애'에서 비롯됨(갈등의 원인)

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통이를 꾸러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물건을 보며 써서 꾸러 놓은 것.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

외할머니를 반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평화로웠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는 날까지 높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

외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호의적 태도

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종게 지내왔었다. 수복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이념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

삼촌이 북한군에 가담하여 외삼촌과 적대 관계가 형성됨.

그때까지 대밭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외삼촌은 남한의 군인이 됨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곁에 두드러진

할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자식의 피해를 걱정하는 모성애에서 근심거리가 생김.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열쭉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은 두 할머니의 갈등을 조정하는 요소가 됨.

터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제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백성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

외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나'의 발설이 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역성을 들고 있음.

했던 것이다.

➤ **나의 고백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생김**

작 품 개 관

- **갈래:** 중편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상징적, 토속적, 샤마니즘적
- **배경:** 시간-전쟁 중 여름/ 공간- 어느 시골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특징**
 - 방언을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함
 - 샤마니즘적 방법으로 상처를 극복하려 함.
 - 어린 서술자의 등장으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서술함.
-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화해

전후 소설 & 성장 소설

- **전후 소설:** 전쟁과 전쟁 이후를 배경으로 한 소설로 작가의 경험이나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다. 전후 소설은 '전쟁의 비극'을 고발하거나 '휴머니즘'을 주제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다수이다.
- **성장 소설:** 유년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가는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로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나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등이 대표적이다.

소설의 시점

시점은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다. 1인칭 시점은 '나'를 등장시켜 '나'의 내면 심리와 갈등을 표현하는 주인공 시점과 작품 속의 인물을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으로 나눈다. 3인칭 시점은 '그'나 '사람 이름'을 통해 주인공을 설정하고 내면 심리까지 다룬 '전지적 작가 시점'과 관찰의 정도만을 서술하는 '관찰자 시점'으로 나눈다.

인물과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먼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장마

| 윤홍길



핵심 정리

작품 분석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쫓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별안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
외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인민군에 있다고 여기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임. 친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저주가 아닌 모성애에서 비롯된 저주의 마음을 표현한 것.

"더 쏟아져라! 어서 한 번 더 쏟아져서 바닷새에 숨은 빨갱이 마자 다 썰어 가 그라! 한 번 더, 한 번 더, 옳지! 하늘님 고오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 외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히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늙다리 예쁜네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위험 발생 요소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함.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악의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집인 종 알고 저 지랄이라, 지랄이?"
 옆에서 흔들여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보자 허니께 참말로 눈꼴시어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웬수로 갚는다드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허는 말이고만. 울디갈디 없는 신세 하도 불쌍허서 들 같이 살게 해준 은혜를 모르고 저주를 퍼붓는 것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
 어얹혀 농게로 인자는 아도 으런도 몰라보고 갓인 야냥개를 다 부리네그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시런 맘을 먹으면은 뱀대로 거그한티 날베
할머니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위해 저주를 퍼붓는 것에 대한 훈계.
 락이 내리는 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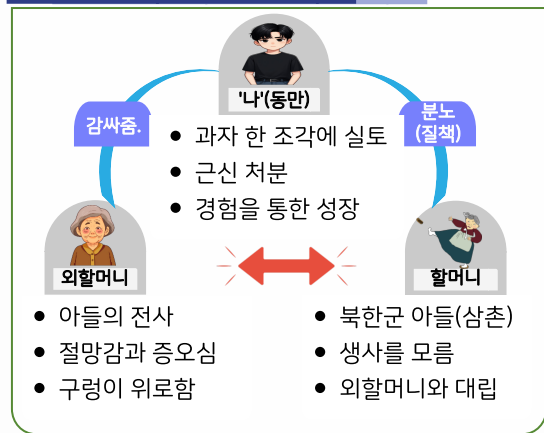
당장 메어꽃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누르고

▶ 아들의 죽음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심화됨.

작품 이해와 핵심 요소

- **두 할머니의 갈등과 화해 과정:**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모성애를 바탕으로 두 인물의 갈등이 시작되고, 구렁이의 등장에서 외할머니의 행동이 갈등 해소의 요소가 되고 있음.
- **1인칭 어린 화자가 서술자로 등장:** '나'는 이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인간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고 있다.
- **샤머니즘적 요소와 구렁이의 등장:** 구렁이는 죽은 조상의 혼령으로 여겨지는 존재로, 작품에서는 삼촌의 영혼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장마'의 상징성과 분위기:** 장마는 전쟁과 갈등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답답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장마의 끝은 두 할머니의 갈등 해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이념 대립과 가족애:** 두 할머니의 갈등은 소설 전체에서 이념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두 삼촌이 이념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지 두 할머니는 아들을 위한 모성애를 기반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인물간의 관계 형성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장마

| 윤홍길



핵심 정리

작품 분석

"아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나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성부른가? 외상존 어림 반푼도 없는 소리 빛감도 말어. 인명은 재천이랬다고, 다아 진상존 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여. 그리고 자석이 부모보담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여.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었기 땀시 자석놈을 앞시워 놓고는 뒤에 남어서 그 고통을 다아 감당허게 맹근 게여. 애시당초 자기 팔자소관이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허고 마잘 것이 없어. 낫살이 저만치 예순줄에 앉아 있음

시나 조께 부끄런 중도 할머니는 운명론적 인생관을 갖고 있고, 아들의 죽음이 부모의 전생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외상존의 죽음이 자기 아들이 속한 인민군에 의한 것이 아리라는 논리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덜놈 먼저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여지게 짚어지고 나와서 아덜 농사를 그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양갈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으 예펜네 말하는 것 점 보소이.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했능개비. 내 아덜이 왜 어디가 어찌간디 그려?"

"생각허 보면 알 것이구만."

"저 죽은 댜이 지사 지내 줄 놈 한나 없응게 남덜도 모다 그런종 아는가분디....."

"고만덜 허뒤요!"

"우리 순철이는 끈덕도 없다, 끈덕도 없어. 무신 일이 생겨야만 깊이 시연헐티지만 순철이 가는 쏘내기 새도 요리조리 뚫고 땡길 아여."

"어따 구만덜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짜증을 부렸다.

▶ 모성애에서 비롯된 할머니들의 갈등과 대립

핵심 POINT!

전체 줄거리

긴 장마가 지루하게 이어지던 어느 날, 서술자인 동만의 집에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연락이 온다. 외할머니는 동만의 집에 머물며 그 충격에 빨치산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다. 외할머니의 이런 행동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에 숨어지내는 아들들 둔 친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려 두 노인은 크게 대립한다.

어느 날 친할머니는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 점쟁이가 말한 그날에 삼촌은 오지 않고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 할머니는 실신한다.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정성을 다해 달래주고 구렁이는 대밭으로 사라진다. 할머니는 외할머니와 화해를 하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길고 긴 장마가 그친다.

인물의 성격과 근거

- 할머니
 -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함.
 - 무속 신앙을 철저히 믿는 고집이 있음.
 - 운명론적 인생관 소유자
- 외할머니
 - 침착하고 지혜로움(냉정하게 사태 수습)
 - 무속 신앙 믿음(머리카락 태움)
- '나'
 - 분별력이 없음(과자 사건, 구렁이 해침)
 - 사건을 겪으며 성장함.(할머니와 용서 과정)

이 소설의 시점의 문제

이 소설은 전체 주제를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시점을 달리 보는 경향이 있다. 먼저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을 그린 소설로 접근하면 '나'의 시선에 비친 두 할머니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나'의 성장 과정을 다룬 소설로 보는 경우이다. 이는 '나'가 할머니와의 용서 과정과 가족의 비극적 상황을 체험하면서 성장의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

윤홍길의 작품 세계

윤홍길은 1970~8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이다. 철저한 사실주의 시각으로 시대의 모순과 근대사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이면서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고 따뜻한 시선으로 휴머니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장마',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이 대표적이다.

'완장'이라는 소설에서는 권력의 속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통해 지배층의 왜곡된 지배 논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